

다산포럼

냉면, 맛의 차이와 다양성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5월 첫날. 4·27 판문점 선언이 보여 준 분단 드라마의 급진전 파장 속에 하루를 시작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관한 신뢰도가 14.7%에서 64.7%로 급격히 높아졌다는 라디오 뉴스를 들었다. 이름 그대로 평화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불어온 봄바람 속에 냉면 기호가 시원하게 파동치고 있다.

어머니의 대동강 추억담

평소 냉면집 탐사를 인생길의 즐거움으로 누려온 나 같은 냉면 마니아에게 이런 돌발 뉴스는 온갖 상념을 솟구치게 만든다. 19세기 중반, “당신이 무엇을 먹는 지 말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 드리지요”라고 말한 미식 평론의 원조 격인 브리아 사바랭(Jean Anthelme Brillat-Savarin, 1755~1826)

청춘특·독

청년들의 자유를 위한 모험



김 채 린  
광주여대 서서비스경영학과 4학년

취업난과 고용 불안은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문제다. 취업해야 하는 청년들의 고민과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조금 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즐겨보자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늘고 있다. 취업 전에 학생 때 해보지 못했던 여행, 어학연수에 나서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지금 아니면 할 시간이 더욱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자유를 위한 모험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

기 고



이 정 운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미국 기계기술사

며칠 전 4기구를 맞이한 세월호 참사는 설비의 안전, 안전 관리, 사고 대책에 있어 거의 무방비한 사고였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각종 의혹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1년 3월 원전 역사상 가장 큰 사고가 이웃나라인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은 커다란 인명 사고만 앗은 뿐 사고와 대처 미흡 성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에서 안전에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할 수 있는 대목은 사용후 핵연료다. 물이 가득 찬 수조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 저장 실패는 취약

한 것으로 누차 지적됐으나 개선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의 경우 지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기간 동안 조성경 위원장의 질의에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테러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 25개 원전 중 한 곳의 임시 저장조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전체 원자로에 있던 핵연료와 맞먹는 양이라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더욱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고를 둘러싼 벽의 두께가 격납 용기(돔모형의 콘크리트)의 3분의 1 수준으로 얇아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9일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국가 안보 차원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하다면 정부는 곧바로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최근 원전에서는 각종 오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견된 망치, 격납 용기 콘

원전 안전을 일개 직원이 좌우하는 나라

리트 공극 문제, 격납 용기 철판 부식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오펜 문제는 얼마나 더 잠복해 있는지 내부 고발에 의하지 않고는 규명이 불가능하다. 최근 망치 발견으로 교체된 증기 발생기의 경우 두산중공업에서 영광군 지역민에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관계 당국과 사업자는 ‘망치가 발견된 것은 사과했지만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모른다’고 했다. 사과의 진정성도 떨어질 뿐더러 원인 규명도 없이 문제를 덮겠다는 것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범죄 행위에 가까운 이러한 행위에 사법경찰관까지 확보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해서 밝히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 영광 주민들의 불안을 감안하면, 원안위는 사법경찰관을 발동해서라도 증기 발생기에 망치가 들어간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원안위는 지난해 7월 영광 한빛원전 격납용기 콘크리트 공극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원안위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국가기관, 즉 제3

다양성을 체감하면서 내 미각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행하게 시원하면서도 깊은 육수의 맛, 찬물에 씻어 낸 면발의 매끈함, 새콤달콤 맛의 조화를 전해 주는 무와 오이, 배와 삶은 계란, 국물 우려낸 양지머리로 올린 조화로운 색채 미학까지 챙기며 진짜 냉면을 가려내려 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냉면 맛을 잘 안다는 나 자신의 고정관념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여 나의 미감을 열어 두기로 한 것은 음식을 나누고 베푸는 다양성의 맛을 일깨워 준 음식 영화 덕이기도 하다.

음식 예술의 묘미와 반전

이틀테면, ‘바베트의 만찬’(Babette’s Feast, 1987, 가브리엘 악셀)에서 눈요기했던 음식 장면들이 그렇다. 영화는 출고국인 덴마크 바닷가 작은 마을, 바닷바람과 태양에 생선을 말리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짙빛 하늘이 드리워진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청빈한 삶을 신앙심으로 버티어 나가는 두 자매에게 이븐 사연을 가진 바베트가 도피해 오면서 사건이 벌어진다. 모든 게 일사천리로 잘 풀리지만은 않았던 프랑스 혁명기, 가족을 잃은 바베트는 파리 일류 식당 ‘카페 앙글레’ 요리사 신분을 감춘 채 가난한 두 자매의 무보수 가정부를 자청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베트가 복권에 당첨

되면서 전복적 상황이 발생한다. 거금이 생긴 그녀가 프랑스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바베트는 곧 다가올 목사님의 탄생 백 주년 만찬을 준비하게 해 달라고 간청한다.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간 그녀는 일주일 동안 온갖 먹거리를 한 수레 실어 온다. 이제 음식 만들기 풍경이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 소스 끓는 소리와 불길의 활~ 퍼져 나오는 프라이팬, 빛을 반사하는 유리잔 속에 담긴 와인, 캐비어를 얹은 블러디 드미로프, 여성용 축추주 비브 클리코 샴페인이 솟아오르는 거품 등등...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못 참고 드러내던 사람들은 만찬을 통해 변화하기 시작한다. 달빛 아래 손에 손잡고 우물거에서 강강술래하며 만찬장을 떠나는 이들의 모습은 다시 봐도 명장면이다. 평생 먹고살 돈을 만찬으로 다 쓰고 마을에 남기로 한 바베트는 이렇게 말한다. “이 돈을 다 써도 가난하지 않아요. 진정한 예술가는 절대 가난하지 않으니깐요.” 사람들의 변화를 본 그녀는 또 이렇게 고백한다. “오늘 저녁, 저는 배웠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죠.” 바로 이런 감동과, 고통을 기쁨으로 반전시키는 음식 예술의 묘미가 지구촌 평화 음식 냉면 로드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

社 說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차근차근 준비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5월 중에 폐쇄하기로 한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도 5월에 열릴 예정이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남북 회담들도 5월에 잇따라 열린다. 5월 한 달은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시기다. 북미 간 핵 담판의 길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3~4주 이내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까지의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역사적인 판문점 정상 회담의 감동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 이번 주 추진위 첫 회의를 열고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조만간 장성급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고위급회담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북한과 협의할 계획이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5월 개최’가 명시돼 있는데, 군사적 긴

장 완화 방안들이 협의될 예정이다. 고위급회담도 5월 개최가 유력한 가운데 앞으로 남북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시기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6·15 남북 공동기념행사도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역사적인 선언의 빈틈없는 실천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선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 필요하면 법제화를 통해 뒷받침하는 일을 들 수 있다. 또한 5월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비핵화 가는 국제 사회의 협조 체제를 강고히 하는 일도 중요하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합의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날이면 날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케케묵은 색깔론으로 공니를 부리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법발한 준비와 함께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재해, 왜 호남 지역에서만 늘어나나

지난해 호남권의 산업 재해 사상자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재건축 붐을 타고 아파트 공사 현장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지만 안전 의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전보건공단은 ‘2017 산업 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인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의 지난해 재해자 수는 사망 202명을 포함해 1만253명이었다. 이는 전년도 1만94명에 비해 159명이 늘어난 것이다. 전국 6개 지방고용청 가운데 재해자가 증가한 것은 광주청이 유일했다. 또한 지난해 광주청 관내 전체 근로자(193만7104명) 대비 재해자 비율도 0.53%로 전국 평균인 0.48%에 비해 높았다.

산업 재해가 늘고 있는 요인으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아파트 건설 현장이 우선 꼽힌다. 지난해 호남 지역 건설 현장에서는 모두 14명이 숨졌다. 이는 전년에 비해 배로 늘어난 것으로, 추락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4월 16일에도 광주시 동구 소태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김 모(73) 씨가 추락해 숨졌다. 결국 전국적으로 산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호남권에서만 나는 것은, 건설 현장 관리자들의 안전 관리 소홀이나 감독 부실 등 그만큼 안전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 감독과 함께 재해가 발생하면 원장 업체와 발주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몰타는 이탈리아 남쪽 지중해에 있는 면적 316km<sup>2</sup>의 작은 섬나라다. 지난 1989년 12월2~3일, 조지 H.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은, 이곳에 정박한 소련 여객선 막심고리키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른바 몰타회담이다. 두 정상은 이 회담에서 동유럽의 변혁과 군비 축소, 경제 협력, 남미와 중동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다음해 6월 워싱턴 정상회담 약속을 빼놓고는 어떤 합의도 이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몰타 회담은 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이 회담 후 동등기자 회견에서 “세계는 냉전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며 “냉전의 종식”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몰타회담을 계기로 핵무기를 포함한 수천억 원의 군사비도 급물살을 타게 된다. 그로부터 29년 만인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는 몰타회담에 비견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서울서 북쪽으로 62km, 평양서 남쪽으로 215km 떨어진 판문점은 한국전쟁의 발발부터 정전 이후 65년간 이어져 온 분단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정식 명칭

이 판문점에서 체결됐다. 그리고 65년 만에 이곳에서 남북 간 대결의 역사를 끝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판문점 선언’도 나왔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합의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정부와 협의회들의 성과와 견주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몰타회담 후 미국과 소련은 약속을 실천해 나가면서 냉전의 종식을 이뤘다. 우리도 ‘판문점 약속’을 지켜 나가면서 분열과 갈등의 한반도를 21세기 평화의 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박지성 서울취재본부장 jk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지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평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